

# 金笠詩에 나타난 動植物 考察

柳年錫(제1저자)\*, 梁東植\*\*

<차 례>

- |                 |                  |
|-----------------|------------------|
| I. 서론           | IV. 借字表記의 동식물 검토 |
| II. 實在하는 동식물 검토 | V. 결론            |
| III. 想像의 동식물 검토 |                  |

## I. 서론

『金笠詩集』에 실린 漢詩의 원작자는 金炳淵(1807~1863)이다. 김삿갓으로 잘 알려진 그는 흥경래의 난 때 선천방어사를 지내던 金益淳의 장손이다. 그러나 역적으로 사형을 당한 폐족의 자손이라서 과거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고 35년 간 방랑하며 詩酒로 결식하다가 객사했다. 1939년에 이응수가 그의 유고를 수집하여 펴낸 책이 『金笠詩集』이다. 이응수는 1941년에 『金笠詩集』 증보판을 내었다. 증보판 前篇은 五言·七言의 律詩 200여 편, 後篇은 公陵시 및 부록 130여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응수 『金笠詩集』 증보판 前篇에 실린 五言·七言 율시를 대상

\* 순천대학교

\*\* 순천대학교

으로 그 詩들에 등장하는 120여 종의 動物과 植物이 시의 주제와 상응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고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모든 문학작품에는 예외 없이 각양각색의 동물과 식물이 등장하여 상징과 비유로 기능한다. 당연히 『金笠詩集』에도 수많은 동식물이 등장한다. 이들 동식물은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지구상에 實在하는 생물로서 그 생태적 특성이 문학작품에 원용되는 경우다. 예컨대 수양[牡羊]이 울타리를 지나가다가 뿔이 걸려 꼼짝달짝 못하는 상황은 사람이 궁지에 몰린 진퇴양난의 처지로 비유된다.

둘째, 상상의 생물로서 不老草나 碧桃 또는 蛟龍처럼 실재하지는 않으나 想像上의 특성이 작품 속에서 상징이나 비유로 쓰이는 경우다.

셋째, 순수한 우리말의 동식물 이름을 한문으로 借字한 것이 있는데 스무나무를 二十樹로 표기하여 作詩한 예 등이다.

위에 해당하는 생물의 생태적 특성이 문학 작품에 원용될 때 정확한 種으로 同定되지 못하면 내용의 이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컨대 『金笠詩集』의 <網巾>에 보이는 ‘網學蜘蛛織學蛩’을 들 수 있다. 이 한시는 某人이 김병연에게 蛩, 庸 등등의 韻字를 제시하고 글을 지으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김병연은 “거미에게서 그물 짜는 기술을 배우고 귀뚜라미의 지혜를 본받아”<sup>1)</sup> 망건을 만든다고 시를 지었다. 여기에서 거미가 그물을 치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비유는 이해가 되지만 귀뚜라미의 지혜는 수긍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귀뚜라미의 異名인 促織이라는 용어가 해결의 열쇠가 된다.

促織이란 ‘날씨가 추워지므로 빨리 베를 짜라고 재촉하여 우는 벌레’라는 뜻을 담고 있다. 촉직의 중국어 발음은 ‘추즈’인데 추즈추즈로 연독하면 귀뚜라미가 귀뚜라미 운다는 의성어와 관계가 있는 듯 하다.

다음은 상상의 생물을 실재하는 사물과 혼동하거나 왜곡하여 해석 또는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蓂草>라는 작품의 경우다. 명

1) 이응수, 『김립시집(증보판)』(한성도서, 1941), 80쪽.

초는 전설상의 식물이다. 이 식물은 중국 堯나라 때에 나타났다는 상서로운 식물인데 초하룻날부터 보름날까지 하루에 한 잎씩 났다가 열엿새부터 한 잎씩 떨어져서 그믐에는 다 떨어져 버리고, 작은 달에는 마지막 한 잎이 시들기만 하고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식물을 보고 달력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식물을 달력풀이라고 한다. 그런데 권영한은 이 식물의 이름을 실재하는 “萱草”<sup>2)</sup>로 바꾸어 버렸다. 그러나 현존하는 萱草로 바꾸어 번역하면 전설상의 식물인 蓂草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며 시의 이해에도 접근하기 어렵다.

이에 필자는 『金笠詩集』의 최초 역편자인 이응수 이외의 여러 문헌을 살펴보고 몇 건의 혼동과 오역을 바로잡기로 하였다.

## II. 實在하는 동식물 검토

김립시에 나타난 실재하는 동식물로 월조, 백구, 참외, 국화, 매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주제와의 相應 如何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 越鳥

嗟呼天地間男兒	아, 넓고 넓은 이 세상 남아들이여
知我平生者有誰	내 평생 지난 일을 누가 알 것이냐?
萍水三千里浪跡	삼천리 방방곡곡 부평초같이 떠돌았고
琴書四十年虛詞	거문고 타고 글 읽은 사십년 세월 헛 것이오.
靑雲難力致非願	청운의 꿈은 힘으로 이뤄지기 어려워 내 원하는 바 아니고
白髮惟公道不悲	공도(公道)로 오는 백발 슬피한 것 아니로세.
驚罷還鄉夢起坐	고향 그린 꿈을 꾸다 놀라 문득 꿈을 깨고 일어나 보니

2) 권영한, 『김삿갓시』(전원문화사, 2001), 60쪽.

三更越鳥聲南枝 깊은 밤 월조 울음만 남쪽 가지에서 들려오도다.<sup>3)</sup>  
 <自歎>(전문)

이 작품에 대해서 이명우는 ‘깊은 밤 월조 울음만 남쪽 가지에서 들려오도다’로 번역했다. 그리고 주석에서 월조를 “중국 남방에 있는 越나라의 새, 孔雀의 별명”<sup>4)</sup>이라고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과 주석으로는 시적 화자인 김병연의 탄식과 월조[공작새]와의 관계가 불투명하다. 예컨대 ‘首丘狐’<sup>5)</sup>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김병연의 심사를 잘 비유하고 있지만 ‘월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월조는 南方의 새인데 다른 지방으로 옮겨 “보금자리를 지을 때에는 반드시 남쪽의 나뭇가지를 선택한다<sup>6)</sup>”는 말이 있다. 그 까닭은 남방의 고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사’로 전변되어 비유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월조라는 동물의 실제적인 생태와는 상관없이 首邱初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하고 이에 따라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 2. 白鷗

浮浮我笠等虛舟	둥둥 뜬 내 삿갓 빈 배와 같은데
一着平生四十秋	한 번 쓴 채 어느덧 사십년이 되었구려.
牧豎輕裝隨野犢	소 먹이는 목동들은 들로 갈 때 손에 들고
漁翁本色伴沙鷗	갈매기를 벗 삼는 어옹들도 머리에 쓰네.
醉來脫掛看花樹	한가할 땐 벗어서 나무에 걸어놓고 꽃구경하고
興到携登翫月樓	흥이 나면 팔에 걸고 누각에 올라 달 구경하네.
俗子衣冠皆外飾	속인들의 의관이야 형식으로 꾸밈을 뿐

3) 이명우, 『김삿갓金笠詩集』(집문당, 2000), 180~181쪽.

4) 상계서, 같은 쪽.

5) 이응수, 전계서(증보판), 37쪽.

6) 胡馬依北風 越鳥巢南枝(昭明, 『文選』).



기하며 속명은 ‘줄’<sup>14)</sup>이다. 줄의 열매를 ‘고미라고 부르는데 구황식물’<sup>15)</sup>로도 쓰였다. 그러나 이응수의 大意로는 이 식물과 한시의 내용을 연관시키기 어렵다. 이응수의 大意가 단 3줄에 불과한 이유는 아마 그 자신도 자세히 알지 못했던 까닭이라고 짐작된다. 이후 백길순은 제목을 “참외”<sup>16)</sup>로 바꾸었다.

위의 번역문에서 3행의 첫 글자가 ‘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한시 원문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네’의 오자로 보이므로 정정했다. 이후 박오양본에는 ‘데가가 ‘네가’<sup>17)</sup>로 정정되었으며 나머지는 一字一句도 틀림 없을 뿐만 아니라 띄어쓰기조차 똑같다. 이와 같이 백길순이 박오양으로 역편자의 이름만 바뀐 판본은 물론, 이후의 모든 판본에서도 <蓎>가 <참외>로 둔갑하여 그대로 고착되었는데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정대구는 이 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시도했으나 蓎의 실체에 대해서는 역시 해답을 주지 못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외모는 위장군 → 밖은 푸르고  
중심은 연태자 → 속이 붉은 고미여  
너는 본래 땅에 속하는 물건인데  
어떻게 저 하늘의 둥글을 꿈꾸는가.

평범한 일상 사물인 고미[蓎]를 묘사한 5언절구다. 일견 단순한 것 같은 이 시도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기구와 승구의 표면적인 풀이는 ‘외모는 위장군이요/중심은 연태자이다’로서 번역은 되지만 고미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다. 이 두 구는 이면에 또 다른 뜻을 숨기고 있어서 그

14) 안덕균, 『한국본초도경』(교학사, 1998), 247쪽. 줄 또는 줄풀로도 불림. 학명은 *Zizania caudiflora* (Trucz. ex Trin.)

15) 이영노, 『한국식물도감』(교학사, 1996), 1009쪽.

16) 백길순, 전게서, 38쪽.

17) 박오양, 전게서, 42쪽.

뜻으로 해석함으로써 고미의 형상화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위 장군의 이름은 푸를 청(靑)자 ‘청’이고 연태자의 이름은 붉은 단(丹)자 ‘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비로소 어떤 실마리를 잡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 이 시를 다 이해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고유명사 청(靑)과 단(丹)을 끝이 끝대로 고유명사로 보면 안 되고 청(靑)을 ‘푸르다’, 단(丹)을 ‘붉다’라는 형용사로 해석했을 때 비로소 이 시구가 ‘외모는 푸르고/속안은 붉은 고미여’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이해되는 것이다.<sup>18)</sup>

정대구의 「김삿갓 연구」에서도 실재하는 ‘고미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다’고 했다. 필자 역시 ‘고미’를 직접 관찰하지 못했다. 최의석은 ‘菘’을 ‘瓜’로 표기했다. 그러나 “이응수 本에는 ‘菘’로 되어 있다”<sup>19)</sup>고 원전의 제목을 밝혔다.

문헌에 따르면 “고미는 細長, 圓筒形이며 길이는 1.5~2cm”에 불과하다.<sup>20)</sup> 최근 이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는 “고미의 외부는 청록색 계통이지만 내부의 胚乳는 백색이므로 연태자의 이름 丹[붉은 색]과는 부합되지 않는다”<sup>21)</sup>는 진술을 했다.

역편자에 따라서는 “참외를 얻어먹고”<sup>22)</sup>로 고치면서 한자표기는 “甘瓜”<sup>23)</sup>로 했다. ‘甘瓜’는 참외의 한자 표기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 역편자 역시 ‘菘’을 ‘甘瓜’로 바꾼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고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2가지 가정을 세운다. 첫째, 최초로 김병연은 ‘甘瓜’를 從書 즉 내려쓰기로 썼을 것이다. 이응수는 瓜字 위에 모종의 획劃이 붙어있는 한자를 찾은 결과 가장 유사한 ‘菘’을 선택했다. 草書의 ‘甘’<sup>24)</sup>은 ‘+’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심쩍어

18) 정대구, 『김삿갓 연구』(문학아카데미, 1990), 125~126쪽.

19) 崔碩義, 『金笠詩選』(東京: 平凡社, 2003), 206쪽. 瓜 まくわうりのこと。李応洙本には菘(まこも)となっている。

20) 星川清親, 『食用作物』(동경: 養賢堂, 1980), 397쪽.

21) 진일두, 순천대학교 교수,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전공>.

22) 이명우, 전계서, 2001쪽.

23) 상계서, 201쪽.

괄호를 치고 ‘(고미, 實名)’이라고 부기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菘’는 ‘甘瓜’의 오독에 의해서 발생했으며 후세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瓜’로 바꾸어 버렸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참외는 ‘밖은 푸르고’가 아니라 ‘밖은 노랗고’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 아마도 김병연의 생존 당시에는 껍질이 노란 참외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래종 참외는 ‘껍질은 푸른’ 개구리 참외였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개구리참외 *Cucumis koreana* 박과에 속한 1년생초. 참외의 재래 품종으로 성환참외라고도 한다. 속살은 붉고, 껍질은 푸른 바탕에 개구리의 등처럼 얼룩덜룩한 무늬가 많다. 향기가 좋고 맛이 달다. 남(南)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성환(成歡) 부근에서 많이 재배되어 왔다.<sup>25)</sup>

둘째, 이응수가 수집한 원고에는 西字와 瓜字가 역시 초서로 내려 쓰여져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한 개의 문자로 간주한 이응수는 瓜字 위에 모종의 劃이 붙은 한자를 찾아냈다. 그 모종의 劃은 西字였는데 卍字로 오독했을 것이다. 외모는 장군처럼 푸르고 속은 연태자처럼 붉으며 둥글다는 사물은 참외보다 수박에 더 가깝다. 필자는 ‘甘瓜’보다는 ‘西瓜’일 가능성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수박은 과실 가운데 가장 크며 그 모양 또한 장군의 품위도 있다. 그리고 紅肉種 수박의 속은 매우 붉다. 둥글기로는 수박보다 더 완벽한 사물은 없을 것이다. 17세기에 쓰여진 동의보감의 표기는 “西瓜 수박, 靛瓜, 츄외”<sup>26)</sup>로 되어 있다. 『열하일기』에는 “수박씨를 西瓜仁”<sup>27)</sup>이라고 했는데

24) 赤井清美, 전제서, 1490쪽.

25) 『동아대백과사전』(동아출판사, 1985), 578쪽.

26) 許 浚, 『東醫寶鑑』(남산당, 1998), 715쪽.

27) 이가원 옮김, 『열하일기』(경인문화사, 1977), 631쪽.

‘西瓜仁’의 오자로 생각한다. 참외를 ‘骷觶(침라)’로 표기하기도 한다.

#### 4. 上莎

十里平沙岸上莎	십리나 되는 넓은 모래 벌판에 잔디가 자라고
素衣青女哭如歌	소복한 청상과부의 곡소리가 노래하듯 흐느끼네.
可憐今日墳前酒	가련하다! 한식날 무덤 앞에 따르는 술은
釀得阿郎手種禾	죽은 낭군이 손수 가꾼 벼로 빚은 술이렸다. <sup>28)</sup>

〈寒食日登北樓吟〉 (진문)

이응수는 註에서 ‘莎’는 海岸에 生하는 藥草로 그 地下莖을 香附子라 하여 藥에 쓴다고 했는데 그 大意를 보면 다음과 같다.

可憐하다 今 寒食, 男便의 墓前에 붓는 이 술을 釀造할 때에 이 젊은 寡婦는 홀로 嘆息하여 갈아대 ‘이 술 만드는 피[禾]는 郎君이 生前에 손수 심으신 피이었던나’한다. 十里平沙中에 적은 沙丘가 있는데 그곳에 莎草가 띄엄띄엄 生하여 있고, 그 속에 墳墓가 있어 素衣青女가 앞에 앉아 哭하는 것이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sup>29)</sup>

물론 사초는 향부자, 띠풀 등의 뜻이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 ‘십리 모래 언덕우에/사초가 푸른데’라고 한다면 이것은 ‘십리 모래 언덕 위에 향부자가 푸르다’는 의미가 된다. 한식날이라면 대체로 양력 4월 초순이다. 야생에서 향부자가 푸르게 보일 만큼 새싹이 돋지 않는 시기이다. 김일호는 “바닷가 넓은 백사장에 향부자가 싹 틀 때”<sup>30)</sup>라고 번역하였는데 오역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민속에 따르면 대체로 한식날 자손들이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莎草를 하는 등 묘를 돌아본다. 그러므로 이

28) 이명우, 전계서, 87~88쪽.  
 29) 이응수, 전계서(초판), 89쪽.  
 30) 金一湖, 『金笠詩集』(眞文堂), 178쪽.

시에서의 사초는 향부자가 아니라 ‘묘를 돌보는 작업’을 말한다. 당연히 번역문은 ‘사초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포함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上莎’의 上은 ‘〇〇위에’의 뜻이 아니라 ‘上樑하다(기둥에 들보를 얹고 그 위에 마룻대를 올리는 것)’처럼 ‘莎草하다’의 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작품에 대한 번역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의 제목을 “한식일에 눈썹 시다”<sup>31)</sup>로 韓譯한 경우가 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 이 부분의 번역은 ‘소복입은 젊은 계집 / 곡소리가 노래 같다’는 내용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눈썹이 시다는 ‘히는 짓이 비위에 거슬려 아니꼽다’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바꾸었는지 알 수 없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눈시울이 뜨겁다’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5. 棠梨樹

一任東風燕子斜	불어오는 동풍에 제뿤을 맡겨 제비가 날아들어
棠梨樹下訪君家	팔배나무 아래로 그대 집을 찾아왔구나.
君家春盡飛將去	이 봄 가면 그대 또한 멀리멀리 날아갔다가
留待棠樹後歲花	팔배나무 꽃이 피는 내년 봄을 기다리겠지 <sup>32)</sup>

〈燕子〉 (전문)

이 시의 원제는 〈新溪吟〉이다. 최초의 역편자 이응수는 이 작품의 해석을 생략했으나 이명우가 번역하였다. 이 시에서 주목할 점은 제비와 팔배나무의 관계다. 대체로 한시에서 제비는 桃李花나 버드나무 등의 식물과 연계되어 등장한다. 그런데 왜 하필 ‘팔배나무’인가? 매우 생소한 이 식물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Sorbus alnifolia* (Sieb. et Zucc.) K. Koch.(*S. alnifolia* K. Koch. var.

31) 鄭孔采, 『오늘은 어찌하랴』(학원사, 1985), 358쪽.

32) 이명우, 전제서, 266~267쪽.

typica (C.K. Schneider) Nakai [漢 : 杜, 甘棠. 日 : Azuki-nashi]

우리 나라 각처의 산지에 나는 낙엽 교목. 가지에 피목이 뚜렷함. 잎은 호생, 홀잎, 타원형, 난형, 표면과 뒷면 맥 위에 털이 있다가 없어지며, 가장자리에 겹톱니가 있음. 잎의 표면은 녹색, 뒷면은 연한 녹색. 꽃은 흰색, 산방화서, 가지 끝에 붙고, 지름 1-1.5cm. 꽃잎은 5장, 수술은 약 20개, 암술대는 2개, 밑동에 털이 약간 있음. 열매는 이과, 타원형, 붉은색, 피목이 산재, 길이가 7-8mm. 염색체 수  $2n=34$ . 개화기 : 5-6월 결실기 : 9-10월. 용도 : 관상용, 열매는 식용, 나무는 기구재<sup>33)</sup>

팔배나무를 일명 甘棠이라고도 하는데 경기강원 지방에서 살던 노인에게 물어보면 어린 시절 그 열매를 따먹던 추억이 있다고 한다. 사전에 의하면 棠利는 팔배나무로 나와 있다. 다른 문헌에는 ‘아가위’라는 식물을 ‘櫨’로 표기했다. 식물분류학적으로 櫨와 棠利가 같은 種에 속하는지는 同定하지는 못했지만 우선 같은 나무로 간주한다. 이러한 가정 아래 ‘아가위’에 관련된 다른 자료를 보겠다.

이제 영숙은 기린협에서 살겠다고 한다. 송아지를 지고 들어가 키워서 밭을 갈게 하겠다고 한다. 소금도 된장도 없는지라 산아가위와 돌배로 장을 담그리라고 한다. 그 험하고 가로막혀 궁벽한 품이 연암협보다도 훨씬 심하니, 어찌 견주어 같이 볼 수 있겠는가?<sup>34)</sup>

위 인용문은 燕巖 朴趾源이 쓴 <贈白永叔入麒麟峽序>의 일부분이다. 박지원(1737~1805)이 타계한 이태 뒤에 김병연(1807~1863)이 태어났다. 두 사람은 19세기를 함께 살았던 인물이다. 이 시대의 정치적 혼란과 民生苦는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식량이 떨어진 春窮期에 팔배나무 아래로 체비가 날아든다. 팔배꽃이 피고지고 또 가을이 되면 열매를 따먹고 그 열

33) 이영로, 『韓國植物圖鑑』(교학사, 1996), 359쪽.

34) 今永叔將居麒麟也, 負櫨而入, 長而耕之. 食無鹽豉, 沈櫨梨而爲醬, 其險阻僻, 遠於燕巖, 豈可比而同之哉(정 민, 『비슷한 것은 가짜다』, 태학사, 2000, 274 및 356쪽.).

때로 장을 담가서 겨우살이를 준비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제비와 팔배나무를 궁색한 삶의 애환과 그 추억에 연관시켰을 때 비로소 시적 감흥의 환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6. 衰馱

相如之家壁徒立更無王孫女知音	사마상여는 곤궁한 처지에도 탁문군 과 줄행랑을 쳤지만
衰馱之容貌駭然孰有夫子妾爲願	못난 제 꼬락서니 어떤 여자가 쳐다 나 보겠습니까? <sup>35)</sup>

고사에 있는 사마상여의 집처럼 가난하여 짐벽만 헛되이 삐뚜룸이 서있으나 탁왕손의 딸이 사마상여의 거문고 소리를 알아듣고 따라온 그런 요행을 저는 바랄 수 없고 또 얼굴도 곤태 같이 못났으니 누가 쳐 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sup>36)</sup>

이응수는 위의 註와 같이 ‘얼굴도 衰馱같이 못났으니’라고 했는데 곤태가 무엇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후 최종판인 『풍자시인 김삿갓』에서는 ‘衰馱 = 미상’이라고만 표기했다. 이응수는 최소한 30여 년간 김병연의 한시를 연구했으며 3회에 걸쳐 시집을 펴내었다. 그러나 ‘곤태’에 대해서 끝내 밝히지 못했다. 이응수 이후의 모든 역편자들은 그들의 저작물에서 이 한시를 제외시켜 버렸다. 아마도 작품의 길이가 너무 길고, 번역이 까다롭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필자도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고 자문도 구했지만 해답을 얻지 못했다. 이 방면에 정통한 연구자의 고견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衰馱’의 衰字는 곤룡포 즉 임금의 옷을 뜻하는 말로 많이 쓰이며 馱字

35) 필자 옮김.

36) 이응수, 전계서(증보판), 197쪽.

는 ‘馱’와 같은 글자로 음은 ‘태’ 또는 ‘타’이다. 또한 ‘駝’와도 같이 쓴다. 김병연은 노총각의 용모를 곤태에 비유했다. ‘袞馱’의 馱字는 ‘짐승에게 짐을 싣는다’는 뜻이므로 곤태를 동물로 가정한다. 짐을 싣는 동물로는 말, 노새, 나귀, 코끼리, 낙타 따위가 있다. 위에 열거한 동물 가운데 ‘못생긴 사람’으로 비유할만한 것을 든다면 낙타가 가장 근사하다. 낙타의 모습이 잘 생겼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곤태와 약간 비슷하게 발음되는 동물로는 ‘약대’가 있다. ‘약대’는 낙타駱駝로 표기한다.

김병연의 생존 당시에도 문헌을 통해서 낙타를 그려볼 수 있었을 것이다. 낙타는 橐駝라고도 표기한다. 草書로 씌어진 원문을 脫草하는 과정에서 袞과 橐은 착각을 가져오기 쉬운 서체이다. 이러한 서체의 유사성에 의해서 초래되는 오자의 예로 ‘司馬相如’가 ‘張相如’<sup>37)</sup>로 오기되어 정정한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문은 『熱河日記』에 기술된 탁타 즉 낙타의 생김새다.

“선네들도 처음 보는 것이라 무언지는 똑똑히 모르오나 생각에 낙타인가 싶습니다.” 한다.

나는,

“그 꼴이 어떻게 생겼더냐.”

하고 다시 물었더니, 창대는,

“정말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말인가 하면 굽이 두 쪽일 뿐더러 꼬리가 소처럼 생겼고, 소인가 하면 머리에 뿔이 없을 뿐더러 얼굴이 양같이 생겼고, 양인가 하면 털이 꼬불꼬불하지 않을 뿐더러 등엔 두 뿔봉우리가 솟았으며, 게다가 머리를 쳐들면 거위 같기도 하려니와, 눈을 떴다는 것이 청맹과니와 같사옵더이다.”

한다. 나는,

“그게 과연 낙타가 보다. 그 크기가 얼마만하더냐.”

하니, 그는 한 길이나 되는 허물어진 담을 가리키며,

“높이가 저만하더이다.”<sup>38)</sup>

37) 이상구, 『17세기 애정전기소설』(도서출판 월인, 1999), 129쪽.

위의 예문에서 번역문은 ‘낙타’로 하였으나 원문은 ‘橐駝’<sup>39)</sup>로 표기되어 있다. 낙타의 생김새 가운데 가장 현저한, 다른 동물과의 변별적 특징 하나를 든다면 등에 달린 혹 모양의 肉峰일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도 박지원이 ‘그 꼴이 어떻게 생겼더냐’고 묻자 ‘등엔 두 뿔봉우리가 솟았다’고 했다. 燕巖 朴趾源(1737~1805)은 정조 4년 곧 1780년에 청나라 고종의 七十壽를 축하하기 위한 사절을 수행하여 중국의 熱河를 다녀왔다. 많은 문물을 보고 청나라에서 돌아와 엮은 책이 『熱河日記』이다. 당시의 사대부들이 몰래 탐독했던 이 책을 김병연도 읽었으리라. 낙타를 탁타라고 부르는 까닭은 등에 布袋 즉 자루와 같은 혹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낙타의 혹에 관한 柳宗元(773~819)의 일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무를 잘 가꾸는 郭橐駝는 자기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가 굽사등이처럼 몸을 구부리고 다녔으므로 마치 낙타를 닮았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이 그를 탁타라고 불렀다.<sup>40)</sup>

곽탁타는 나무를 잘 가꾸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등이 혹처럼 솟아 올라 마치 탁타처럼 생겼던 모양이다. 원래 그런 체형을 타고났는지 아니면 굽추였는지 또는 오랫동안 나무를 가꾸다보니 등이 굽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탁타는 낙타의 별칭이다. 또한 이 말이 전용되어 원예사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여하 간에 그를 낙타라는 별명으로 호칭한 것은 그의 용모가 우스꽝스러워서 놀려대는 情調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위의 시 <노총각구걸표>에서 노총각의 모습을 등이 굽은 낙타에 비유했던 것은 아닐까? 낙타는 굽추로 비유되기도 한다. 김병연의 한시에 ‘굽추’ 즉 ‘구루

38) 朴趾源, 『열하일기』, 민족문화추진회, 1977, 145~146쪽.

39) 小人等, 亦初見不知是何物, 意以爲橐駝也, 余問其形何如, 昌大曰實難形容, 以爲馬也則, 蹄是兩岐而尾如牛, 以爲牛也則頭無雙角, 而面似羊, 以爲羊也則, 毛不卷曲, 而背有二峯, 仰首如鵝, 開目如盲, 余曰, 果是橐駝, 其大如何, 指一丈顏垣曰, 其高如彼(상계서, 555쪽.).

40) 郭橐駝不知自何名, 病僂癯然伏行. 有類橐駝者, 故鄉人號之駝(유중원, 「種樹郭橐駝傳」).

尙儻'가 있다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가정을 다시 정리하면 김병연은 行草書로 '橐駝'라고 표기했으나 이응수가 와전誤傳된 것을 가지고 고심하다가 '橐'과 유사한 서체인 '衰'으로 오독했을 것이다. 또한 '駝'는 同音同字로 쓰이기도 하는 '馱'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결국 '탁타橐駝'가 '곤타衰馱'로 변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추리는 이응수가 '곤테(衰馱) = 미상'이라고 주석한 것에 대해서 필자는 '橐駝'를 제시하여 半步라도 진전해 보려는 안간힘에 불과하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海駝'와 '頭陀'가 있다. '해태'라고도 부르는 이 상상의 동물은 사자와 비슷하며 머리에 뿔이 하나 달려 있다. 도처의 古宮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해태 석상의 생김새는 매우 우스꽝스럽다. 실로 못난 사람을 비유하기에 매우 적절하다. '頭陀'는 '앞머리를 눈썹까지 늘어뜨린 모습'의 탁발승인데 역시 초라한 형색을 형용할 때 비유로 쓰일 만하다. 매월당 金時習(1435~1493)이 승려의 행색으로 방랑하던 모습을 두타에 비유한 기록<sup>41)</sup>도 있다. 그러나 둘 다 추측에 불과할 뿐, 그 용례나 문헌적 근거는 찾지 못했다. 許浚의 『東醫寶鑑』에는 낙타가 '野駝(야타)'<sup>42)</sup>로 기록되어 있다.

### Ⅲ. 想像의 동식물 검토

#### 1. 碧桃

彼坐老人不似人 저기 앉은 저 노인은 사람 같지 않게 생겼으니  
疑是天上降眞仙 아마도 천상에서 내려온 신선인가 하노라.

41) 심경호, 『김시습평전』(돌베개, 2003), 7쪽.

42) 許浚, 전계서, 700쪽.

其中七子皆爲賊    슬하의 칠 형제는 모두 도둑 되어서  
 偷得天桃獻壽筵    복숭아 훔쳐다가 환갑잔치 빛냈도다.<sup>43)</sup>  
 <수연시壽宴詩>(부분)

이응수의 大意는 다음과 같다.

王桃는 民間에서 흔히 傳하는 말에 의하면 어린 복숭아 나무가 첫열매를 맺은 것이라는데 아이 못 낳는 부인이 이것을 먹으면 아이를 낳으며 또 장수한다고 흔히 이런 복숭아가 어느 집에 있는 줄 알면 밤에 도적질해서라도 먹으려고 애쓴다.<sup>44)</sup>

위의 시 본문의 ‘碧桃’가 대의에서는 王桃로 되어 있다. 이응수 『김립시집』 초판에는 ‘碧桃’<sup>45)</sup>, 권영한 『김삿갓시』에는 王桃<sup>46)</sup>, 이명우 『김삿갓金笠 시집』 역시 碧王, 그리고 이응수의 최종판 『풍자시인 김삿갓』에는 ‘天桃’<sup>47)</sup>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碧王은 이 용례가 없다. 그러므로 天桃 또는 碧桃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복숭아나무의 한 가지인 ‘벽도나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시에서는 실재하는 복숭아의 어떤 품종을 가리킨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동시에 복숭아를 상상의 식물인 天桃 또는 碧桃로 표기하는 것은 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이응수가 ‘이것을 먹으면 아이를 낳으며’ 그리고 ‘이런 복숭아가 어느 집에 있는 줄 알면 밤에 도적질’한다고 마치 실재하는 사물처럼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2. 六鰲

43) 이명우, 전계서, 90쪽.

44) 이응수, 전계서(증보판), 158쪽.

45) 이응수, 전계서(초판), 14쪽.

46) 권영한, 『김삿갓시』(전원문화사, 2001), 138쪽.

47) 이응수, 『풍자시인 김삿갓』(국립출판사, 1956), 115쪽.

萬二千峰歷歷遊	일만 이천봉을 차례대로 유람하여
春風獨上衆樓隅	봄바람에 나 홀로 여러 누각의 모퉁이에 올랐도다
照臨日月圓如鏡	거울과 같이 둥근 해와 달 비취 주니
覆載乾坤小似舟	아득히 먼 천지가 한 척의 조각배 같구나
東庄天洋三島近	동쪽을 굽어보니 넓은 바다엔 삼도가 가깝게 보이고
北撐高沃六鰲浮	북쪽으로는 높고 기름진 여섯 자라가 떠있는 듯 고산 준령이 버티고 서 있네
不知無極何年關	어느 때 천지가 이와 같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으나
太古山形白老頭	태고산의 생김새가 백발이 된 것처럼 높은 산엔 흰 눈 이 쌓였구나 <sup>48)</sup>

<金剛山> (전문)

이응수의 大意는 다음과 같다.

萬二千峰을 歷歷한 후 春風부는 때 홀로 衆樓의 모퉁이에 올라 金剛山 全  
景을 굽어보니 照臨하는 日月은 이 大規模의 自然 앞에는 한갓 둥근 거울인  
듯하고 覆載(宇宙) 乾坤은 이 高處에서 보기에는 작은 배같이 보인다.

東方! 평평한 大洋이 누운 곳에 三島가 가까이 보이고 北쪽에는 高沃의 六  
鰲(?)가 떠 있어 強仍히 依支하고 있다. 大體 宇宙는 어느 해에 열려졌길래  
저 太古의 산들이 지금은 저렇게 늙어 흰머리가 되었는고.<sup>49)</sup>

위의 ‘鰲’ 즉 ‘鼈’은 ‘큰 자라’이므로 ‘大魚’ 또는 ‘여섯 자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요구되는 것은 六鰲의 실체를 파악하  
는 데에 있다. 이응수는 대의에서 이 부분을 ‘六鰲(?)’로 처리했으나 다음  
의 인용문에 해답의 실마리가 있다.

龍伯之國有大人 용백이란 나라에 대인이 있는데

48) 이명우, 전계서, 292쪽.

49) 이응수, 전계서(초판), 77~78쪽.

舉足不盈數步	발을 들어 몇 걸음 띠지 않고
而暨五山之所	오산땅에 당도하여
一釣而連六鰲	단 번에 육오를 낚아
合負而趣歸其國	등에 짊어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湯問篇〉(부분)<sup>50)</sup>

위의 ‘육오’는 산산을 이고 다닐 정도로 크다는 ‘전설상의 거북이’이다. 문제는 증보판에도 미결인 채 그대로 전제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번역 출판된 『金笈詩選』에는 ‘『列子』의 「湯問」에 실린 전설<sup>51)</sup>이라고 정확하게 주석되어 있다.

이렇게 六鰲의 실체가 究明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새로운 面貌가 드러난다. 첫째, 詩的話者의 空間과 상상의 세계가 合一되는 공감대의 형성이다. 둘째, 역시 시적화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 즉 錦衣還鄉을 꿈꾸는 內面心理에 도달하게 된다.

#### IV. 借字表記의 동식물 검토

##### 1. 二十樹

二十樹下三十客	스무나무 아래 낫설은 과객에게
四十家中五十食	이 망할 놈의 집에선 쉰 밥을 주는구나.
人間豈有七十事	사람으로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不如歸家三十食	고향 집에 돌아가 서른밥(선밥)을 먹음만 같지 못하다. <sup>52)</sup>

〈二十樹下〉(전문)

50) 列子, 『列子』(일본: 富山房, 1912), 5쪽.  
 51) 崔碩義, 전게서, 75쪽.  
 52) 이명우, 전게서, 165쪽.

이 시의 二十樹에 대해서 이명우를 비롯한 모든 역편자들이 스무나무 (또는 시무나무)로 해석하면서 紫榆라는 植物名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二十樹’라는 나무는 없다. 시무나무는 함북 이외의 낮은 지대 및 중국 등지에 분포하는 정자나무의 일종이다. 한자 표기는 刺榆, 軸榆, 樞 등이며 학명은 *Hemiptelea davidii*다. 二十樹라는 표기는 스무나무 또는 시무나무의 借字일 뿐이다. 식물의 명칭으로 와전되는 것을 경계해야 마땅하다.

## 2. 貧士過

天長去無執	하늘이 길어서 가도가도 집을 수 없고
花老蝶不來	꽃이 시들면 나비도 찾아오지 않는다.
菊樹寒沙發	국화꽃은 찬 모래밭에 피고
枝影半從池	나뭇가지는 땅을 향해 반쯤 늘어졌도다.
江亭貧士過	강가 정자에 가난한 선비가 지나다가
大醉伏松下	크게 취하여 소나무 아래 엎어지도다.
月移山影改	달이 기울어 산 그림자가 바뀌고
通市求利來	장꾼들은 돈을 벌러 오는구나. <sup>53)</sup>

<破格詩> (전문)

이응수의 大意는 다음과 같다.

하늘은 길어 가도가도 끝이 없어 잡히는 곳 없는데 때는 가을, 땅에는 꽃이 늙어 나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나 菊花꽃만은 찬 모래 위에 피어[發] 그 가지그림자[枝影]가 절반 못 가운데에 비치었다. 이때 江亭으로 가난한 선비가 지나가다 크게 술에 취해 소나무 아래 엎어졌는데 달그림자는 움직여 서쪽에 저가니 산그림자 또 자리를 옮겨올 제 遠近洞里에서는 저자로 通한 길로 利를 取하러 市場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 둘 들어온다는 意味인데, 이것을

53) 상계서, 361쪽.

음하면 어느 貧弱한 婚家에 가서 잔치를 얻어먹으며 지은 破格詩다.

천정(天井)에는 거미집(거미집)이 쓸고, 화로(火爐)에는 잿불내가 나는 집에서 국수 한 사발을 얻어먹는데, 지렁(간장) 반종지(반종잔)가 상 위에 놓였더라. 그 위에 강정, 빙사과, 대추, 복숭아, 조금씩 얻어 먹을 때 그 집사람이 ‘워-리’하고 사냥개[月移山影改]를 부르니, 그놈의 개가 변소간[통시=慶尙道의 方言, 便所]에 갔다가 와서 구란내[求利來]가 물컹하고 난다.<sup>54)</sup>

위 작품을 漢字로 읽으면, 하늘은 멀고, 시든 꽃에는 나비가 오지 않으며, 국화는 차가운 모래밭에 피어 있고… 등으로 새겨진다. 그러나 韓國語로 독음하면, 천정에는 거미집이요, 화로에서는 잿불 냄새가 나며, 국수[麵子]는 한 그릇… 등으로 들린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文字의 의미와 귀로 듣는 音聲의 의미가 二重으로 파악 된다는 형식이다.

이응수는 <夏雲多奇峰>의 대의에서 “글 題目은 『唐詩』의 春水滿四澤 夏雲多奇峰의 外句를 썼다.”<sup>55)</sup>고 했다. 위의 『당시』 인용구는 『推句』에도 실려 있는데 웬일인지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금 다루고 있는 ‘천장거 무집 화로접불래’ 외에 ‘월이산영개 통시구리내’ 역시 『추구』에 나온다. 이러한 구절의 원작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구구하다. 비슷한 내용이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에도 보인다.

“만첩청산 늪은 범이 살진 암캐를 물어다 놓고, 이는 다 덩속 빠져 먹든 못혀고, 으르르르르르 어형 넘노난 듯, 단산 봉황이 죽실을 물고 오동 속을 넘노난 듯, 북해 흑룡이 여의주를 물고 채운간으 넘노난 듯, 구곡 청학이 난 초를 물고 세류간으 넘노난 듯, 내 사랑, 내 알뜰, 내 간간이지야. 오호어 둥 둥 니가 내 사랑이지야. 목락무변수여천으 창해같이 깊은 사랑, 삼오 신정 달 밝은디 무산 천봉 완월 사랑, 생전 사랑이 이리허니 사후 기호시절에 니 꽃 송이를 내가 덩속 안고 너울너울 춤추거드면 니가 날인 줄 알으려무나.”, “화 로허면 접불래라 나비 새 꽃 찾 찾아간즉, 꽃 되기는 내사 싫소.”<sup>56)</sup>

54) 이응수, 전계서(증보판), 224쪽.

55) 상계서, 2~3쪽.

56)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다섯마당』(한국브리테니카, 1982), 42쪽.

이와 같이 최초의 원전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당시』, 「춘향가」, 『추구』에 들어 있는 시구를 모아 놓은 것도 시인가?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유기적인 구조를 갖추면 소위 패러디 parody 수법의 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를 중국 사람이 중국 발음으로 읽는다면 아무런 재미도 없다. 이 파격시는 한국어의 음운과 독음에 익숙한 사람에게만 소통이 가능하다. 예컨대 英譯을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흥미를 느낄만한 작품이 되지 못한다.

- 天長去無執 花老蝶不來
- As the sky is high, we can not go up and hold it and as the flowers are wilted, butterflies do not appear.<sup>57)</sup>

이 작품에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은 ‘枝影半從池’라는 구절이다. 이응수는 이 부분의 대의에서 ‘지렁(간장) 반종지(반종잔)가 상 위에 놓였더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윤후명은 ‘지영 혹은 지렁이 경상도 사투리로 간장임’을 말한다고 최초로 발견한 것처럼 기록했다.

‘국수 한 사발’에 딸려 나온 것은 ‘枝影半從池’. 한문 해석은 ‘나뭇가지 그림자가 반쯤 땅에 늘어졌구나’였어도 해석이고 뭐고 이는 그대로 ‘간장 반종지’인 것이었다. ‘지영’ 혹은 ‘지렁이’ 경상도 사투리로 간장임을, 그곳에 몇 해 산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식당에서 칼국수를 내오는데 어김없이 ‘간장 반종지’를 곁들여서, 우리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sup>58)</sup>

이러한 해석은 김병연의 한시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응수의 『김립시선』 원전을 확인하지 않는 사태에서 비롯되는 해프닝 가운데 한 예에 불과하

57) 이순단 편저, 『四字小學推句』(키출판사, 2001), 63쪽.

58) 윤후명, 「샷갓조개 따는 여자 김삿갓을 위한 변주(變奏)」, 『난고김삿갓의 문학과 생애』(시선 김삿갓 유족보존회, 2002), 276쪽.

다.

여기에서 논의하려는 重點은 ‘빙사과’다. 왜 이응수는 ‘貧土過’를 ‘빙사과’라고 해석했는지 의문이다. 氷沙菓는 빈사과의 淸음표기다. 빈사과는 강정을 만들고 남은 부스러기를 기름에 튀겨내어 조청을 바르고 여섯 모가지게 뭉쳐 굳힌 후에 물감을 들인 유밀과를 말한다. 이응수의 말처럼 ‘빈한한 혼가에 가서 잔치를 얻어먹었다면 부스러기를 재활용한 빈사과가 그럴 듯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과와 능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蘋科와 沙菓를 구분하여 부른다. 이러한 용례는 『熱河日記』<sup>59)</sup>에서도 볼 수 있다. 추측컨대 김병연은 빈과와 사과에서 중복되는 ‘菓’를 줄여 ‘蘋沙果’의 의미로 ‘貧土過’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桃花와 李花를 줄여서 도리화桃李花로 쓰는 경우와 같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이미 대추, 복숭아 따위의 실과가 소개되었기 때문에 사과가 등장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순수한 우리말 용어를 한자로 차자표기한 동식물의 명칭을 고유한 명사로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 문학 작품 이해의 理想인 소위 玩索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 V. 결론

金笠詩에 나타난 동식물 고찰은 김병연의 漢詩 모음집인 이응수의 『金笠詩集』 증보판을 대본으로 하였다. 前篇의 오언·칠언五言七言으로 된 200여 편의 한시에는 대략 120여 종의 동식물이 등장한다. 이들 동식물은 실재하는 사물, 상상의 산물 및 우리말 명사를 한자로 借字하여 표기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동물과 식물은 작품 내에서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동식물의 생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거

59) 朴趾源, 『熱河日記』(민족문화추진회, 1977), 560쪽.

나 種의 同定이 잘못되어 번역상의 오류를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 이 논문에서는 김립시에 나타난 실재하는 동식물, 상상의 동식물, 차자표기의 동식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김립의 漢詩 가운데 實在하는 동식물이 시의 주제와 상응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예컨대 ‘월조’는 ‘越鳥巢南枝’에서 연유한 것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사를 비유했다. 기타 ‘菘’은 ‘甘瓜’ 또는 ‘西瓜’, ‘衰駝’는 ‘橐駝’로 비유한 것은 草書로 쓰여진 원작을 脫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생각된다. 또한 ‘팔배나무’라는 식물은 단순한 풍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詩的話者인 김병연의 생존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사물이라는 점이다. ‘산아가위’로도 불리는 팔배나무는 ‘장’을 담그는 대용식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삶의 애함과 추억이 서려있다. 그리고 ‘莎草’를 향부자나 잔디로 인식하면 한식날이라는 時制와 전혀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초하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절에서는 想像의 동식물을 검토하였는 바, ‘碧桃’나 ‘六鰲’는 모두 전설상의 동식물이므로 실제의 사물과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시에서의 天桃 또는 碧桃는 ‘仙境에 있다는 과실의 하나’라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김립시의 <환갑연시>에 등장하는 천도 또는 벽도 역시 잔칫상에 놓인 복숭아를 미화시켜 장수를 기원하는 효자들의 행위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복숭아나무 한 가지인 ‘벽도나무’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또한 ‘육오’는 『列字』의 湯文篇에 실린 ‘전설상의 거북이’를 말하는 것으로 ‘6마리의 거북이’로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제3절에서는 借字表記의 동식물을 검토하였다. ‘二十樹’는 ‘스무나무’ 차자이며 고유명사의 표기가 아니다. ‘貧土過’는 ‘蘋果’와 ‘沙果’의 줄임말인 ‘蘋沙果’의 取音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보건데 『金笠詩集』에 수록된 김병연의 한시에 등장하는 동식물들은 實在하는 것, 想像의 산물 및 借字 표기의 동식물로 대별된다. 그 가운데 사물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脫草 과정에

서 오식됨으로서 詩語가 주제와 상응하지 못했거나 시적 감흥을 감소시켰다.

한시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直譯이나 意譯이나라는 구태에서 벗어나 玩索을 통한 훌륭한 번역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에 등장하는 동식물의 생태나 同定の 고찰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논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김병연 한시의 진가가 더욱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영한, 『김삿갓시』, 전원문화사, 2001.  
金一湖, 『金笠詩集』, 眞文堂, 1965.  
간행위원회, 『동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85.  
박오양, 『김립시집』, 문원사, 1974.  
박지원, 이가원 옮김, 『열하일기』, 경인문화사, 1977.  
朴趾源, 『熱河日記』, 민족문화추진회, 1977.  
백길순, 『김립시집』, 대지사, 4287.  
뿌리깊은나무, 『관소리 다섯마당』, 한국브리테니카, 1982.  
星川淸親, 『食用作物』, 養賢堂(동경), 1980.  
심경호, 『김시습평전』, 돌베개, 2003.  
안덕균, 『한국본초도감』, 교학사, 1998.  
列子, 『列子』富山房(일본), 1912.  
윤후명, 「삿갓조개 따는 여자 김삿갓을 위한 변주(變奏)」, 『난고김삿갓의 문학과 생애』, 시선김삿갓유족보존회, 2002.  
이상구, 『17세기 애정전기소설』, 도서출판 월인, 1999.  
이순단(편), 『四字小學推句』, 키출판사, 2001.  
이영로, 『韓國植物圖鑑』, 교학사, 1996.  
이응수, 『김립시집』(초판), 학예사, 1939.  
이응수, 『김립시집』(증보판), 한성도서, 1941.

- 이응수, 『풍자시인 김삿갓』, 국립출판사, 1956.  
장지연(편), 『대동시선』, 발행처(미상), 9권.  
鄭孔采, 『오늘은 어찌하랴』, 학원사, 1985.  
정대구, 『김삿갓 연구』, 문학아카데미, 1990.  
정 민, 『비슷한 것은 가짜다』, 태학사, 2000.  
崔碩義, 『金笠詩選』, 平凡社(東京), 2003.  
許 浚, 『東醫寶鑑』, 남산당, 1998.

<투고일 : 2005. 12. 28. 심사일 : 2006. 2. 3. 심사완료일 2006. 2. 15.>

K C I

<부록> 김립시에 나타난 동식물 일람표

假僧木 : 가죽나무의 차자.

蝸 : 전갈. 빈대.

葛 : 칩.

江亭 : 강정의 차자.

去無 : 거미의 차자.

鯨 : 고래.

鷄 : 닭.

薊 : 삼주. 朮.

薊樹 : 薊. 삼주[朮].

苳 : 교미. 줄풀. 진교. 벚과의 여러해살이풀. 열매는 구황식물로 식용함.

衰馱 : 囊馱의 오자로 보임. 낙타.

蛭 : 귀뚜라미. 蟋蟀, 促織.

蚣 : 지네.

蛟龍 : 모양이 뱀과 같은 상상의 동물. 때를 못 만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영웅호  
걸의 비유. 이무기와 용.

狗 : 개.

龜 : 거북이.

駒 : 망아지

菊 : 국화.

鵲 : 뻐꾸새.

菊樹 : 국수[麵]의 차자.

金鳥 : 해를 달리 이르는 말.

鸞 : 봉황과 비슷하다는 전설상의 새.

鷺 : 백조. 해오라기.

鹿車 : 羊車, 鹿車, 牛車 가운데 하나. 聲聞乘, 緣覺乘, 菩薩乘에 비유됨.

鹿 : 사슴.

棠梨 : 아가위 나무. 팔메나무.

大丑 : 어미소.

桃 : 복숭아.

犢 : 송아지.

東柏 : 冬柏의 오기. 동백나무의 열매.

蠹 : 좀벌레

杜宇 : 杜鵑, 두견새, 두견이, 歸蜀道, 杜魄 杜魂, 望帝, 望帝魂, 不如歸, 時鳥, 子規, 蜀魄, 蜀鳥, 蜀魂 등이 이명이 있으나 빼꾸기와는 다르다. 흔히 소쩍새와도 혼동하여 쓰이고 있으나 잘못임.

藤 : 등덩굴.

驪 : 가라말

馬 : 말.

馬 : 말.

梅 : 매화.

萸莢 : 중국 堯 임금 때에 났었다는 전설상의祥瑞로운 풀.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하루에 한 잎씩 났다가, 열댓새부터 그믐까지 하루에 한 잎씩 떨어지고, 작은달에는 마지막 한 잎이 시들기만 하고 떨어지지 않았다 하여, 달력풀 또는 책력 풀이라고도 하였음.

鷺 : 따오기

鷺 : 고니. 따오기

蚊 : 모기.

斑竹 : 얼룩무늬가 있는 대나무. 요임금의 두 왕비가 죽을 때 흘린 눈물이 얼룩으로 남았다는 전설이 있음.

龍 : 삼살개

蚌 : 조개.

碧桃 : 푸른 복숭아. 선경仙境에 있다는 과실의 하나.

碧蘿 : 푸른 덩태이 넝쿨.

鳳凰 :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

梟 : 물오리

芙蓉 : 아욱과의 낙엽관목. 연꽃을 말하기도 함. 혹은 부용을 그린 房帳인 부용장의 준말.

貧土過 : 蘋果와 沙果를 줄여 부르는 차자로 생각됨.

土過 : 沙果의 차자.

蛇 : 뱀.

蛇：뱀.

莎草：잔디. 香附子.

山影改：사냥개의 차자.

象：코끼리

鼠：쥐.

蟾：두꺼비. 달[月]의 비유.

小丑：송아지.

粟：조. 좁쌀.

虱：이.

蠅：파리.

雁：기러기.

鴛：피꼬리.

羊：양. 염소.

羊：양. 羝羊觸藩. 수양[牡羊]이 울타리를 반다가 뿔이 걸려 움짱달짝 못하게 됨.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궁지에 빠짐. 進退維谷.

鳶：솔개.

蓮：연꽃.

鰲：자라.

玉兔：달을 달리 이르는 말.

蝸室：蝸廬. 蝸屋. 달팽이의 집처럼 작고 누추한 가옥.

蛙：개구리.

蝸：달팽이.

龍：상상의 동물의 하나.

牛：소.

牛：소.

熊：곰.

鴛鴦：원앙새.

越鳥：중국 남방에 있는 월나라의 새. 孔雀의 별명. 월조는 고향을 떠나서도 남쪽

나뭇가지에 집을 짓는다고 함.

柳絮：버들개지. 버드나무의 꽃. 숨처럼 바람에 날려 흩어짐.

六鰲：전설상의 커다란 자라.

- 鷹 : 매.  
李 : 오얏.  
紫驪 : 짙은 밤색의 털을 가진 駿馬.  
紫芝 : 지치. 자주빛 버섯.  
獐 : 노루.  
楮 : 닥나무. 종이를 만드는 데 썼음.  
赤兔 : 赤兔馬. 중국 삼국시대에 呂布가 탔다는 준마의 이름.  
蝶 : 나비.  
棗 : 대추.  
藻 : 마름.  
蚤 : 벼룩.  
蜘蛛 : 거미.  
眞婦菜 : 지리산에서 나는 멧나물의 차자로 생각됨.  
躑躅 : 칠쭉.  
天桃 : 仙家에서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복숭아.  
椒 : 초피나무.  
苔 : 이끼.  
菟 : 새삼. 菟絲.  
芭蕉 : 파초과의 여러해살이 풀.  
蒲 : 부들.  
豹 : 표범.  
荷 : 蓮. 연꽃.  
鶴 : 두루미.  
寒鴉 : 까마귀.  
蟹 : 게.  
香草 : 향내 나는 풀. 담배.  
狐狸 : 여우와 너구리.  
蠍 : 굴. 石化.  
狐 : 여우. 首邱初心.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제가 살던 언덕 쪽으로 향하여 죽는다 함. 고향을 생각하는 것.  
虎 : 호랑이.

鴻：기러기.

黃鵠：고니.

黃梁：기장. 메조. 黃梁蒙.

黃鳥：피꼬리, 金衣公字, 黃雀

猴：원숭이.

K C I

<Abstract>

## A Study on Animals and Plants in Kim, Byeong-yeon's poetry

Ryu, Yeon-seok / Yang, Dong-sik

The animals and plants in Kim, Byeongyeon's Chinese poetry in *KimRipShiJib* are classified into actual being, imaginary being, and the animals and plants described by hired letters.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grasping the real existence of some of them or wrong transformation of the cursive style of penmanship, some poetic words don't correspond to the theme of poems or poetic inspiration decreases. To make this matter clear, I intensely studied by dividing animals and plants in *KimRipShiJib* into three pieces.

In consequence, 'Go' can be considered as a watermelon, 'Yukoh' as an imaginary animal and 'Binsagua' as an apple.

In process of translating chinese poetry, to achieve refined translation beyond literal and free translation, the ecology and identification of animals and plants should be investigated.

**Keywords** : *KimRipShiJib*, Kim, Byeong-Yeon's, Animals, Plants, Binsagua.